

번호: PO-EP-065					
제 목	생물테러에 대한 의료인의 인식 및 대처에 대한 조사				
저 자 및 소 속	김정숙1), 한현우2), 박일훈1), 이덕형1), 김영택1), 박용순1), 천병철3) 1)질병관리본부 생물테러대응과, 2)예방접종관리과, 3)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분 야	역 학 [전염병 역학]	발 표 자	발 표 형 식	포스터	
<p>목적: 2001년 9·11테러 이후 미국에서 우편물을 통한 탄저테러가 발생하여 전 세계적으로 테러에 대한 공포와 우려가 확산되었으며,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는 생물무기 및 생물테러에 대한 대응방안들이 준비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나라 의료인의 생물테러에 대한 인식, 생물테러 대비의 우선순위, 교육 및 훈련 내용과 방법 등을 조사하여 향후 생물테러 국가 대응 정책수립에 반영하고자 실시하였다.</p> <p>방법: 2005년 현재 내과, 소아과, 응급의학과 및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의사를 목표 모집단으로 하였다. 전체 대상자 14,050명을 전국 16개 지역별로 10%씩 단순확률추출하여 1,412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후 설문지를 우편 발송하였다. 총 297부를 회수하여 응답내용이 불충분한 설문지 2부를 제외한 295부를 최종 분석자료로 하였다. 자료 수집은 자가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2005년 1월 13일부터 3월 31일까지였으며 설문내용은 생물테러 관련 일반적 현황 9문항, 대응 수준에 대한 평가 11문항, 교육과 훈련 내용 및 방법 9문항,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6문항 등 총 35문항으로 구성되었다.</p> <p>결과: 본 연구 대상자의 성별은 남자 250명(84.7%), 여자 45명(15.3%)이었고, 연령은 40~49세(40.8%), 근무기관은 의원(64.0%), 전문과목은 내과학(50.1%)이 가장 많았으며, 면허취득 후 근무연수는 10년~14년이 68명(23.3%)으로 가장 많았다.</p> <p>우리나라에서 생물테러 발생 가능성(5점 척도)에 대한 평가는 '중간이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생물테러 발생 시 의료인의 역할은 '일상 진료를 통하여 생물테러 발생 인지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49.5%로 가장 높았다. 생물테러 의심환자 발견 시 의료인의 의무는 '관계당국에 신고'해야 한다는 응답이 95.9%로 가장 높았으며, 생물테러 대비의 우선순위는 전염병 감시체계,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예방접종제의 개발과 비축 순으로 나타났다.</p> <p>생물테러에 대비하기 위하여 의료인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 대상자 295명 중 277명(94.2%)이었다. 생물테러로 인한 감염 발생 인지에 가장 필요한 기준은 '증상자의 군집발생'으로 조사되었고, 생물테러로 인한 감염 발생이 의심될 때 고려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는 '생물테러용 병원체의 사용 가능성'이었다. 한편, 실제 생물테러 발생에 대응하고자 할 때 문제되는 장애물에 대하여 '생물테러로 인한 감염 발생에 대한 인지의 어려움'이 가장 큰 장애 사항으로 파악되었다. 일선 의료인들이 실제 생물테러에 의한 감염 발생시 효율적으로 대처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교육 및 훈련의 내용으로 가장 중요한 항목은 '생물테러 가능한 병원체들의 목록과 해당 병원체에 의한 질환별 특성'으로 나타났다. 생물테러 대응을 위한 교육에 의료인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의사 보수교육 평점인정'이라고 응답하였다.</p> <p>결론: 본 연구결과 생물테러 가능 전염병에 대한 인지도는 낮았으나 전체 대상자의 94.2%가 생물테러에 대비하기 위하여 의료인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교육 참여의지, 생물테러 발생 시 의료인의 역할 및 생물테러 대응 시 의료인의 위치 등 태도는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생물테러 조기 인지를 위한 전염병 감시 강화, 생물테러 대비 전문인력 양성 및 조직 강화, 생물테러 가능 전염병에 대한 백신 및 항생제 등의 물자 비축 관리는 국가 차원의 생물테러 대비를 위해 가장 시급한 문제로 파악되었다. 향후 정부는 대한의사협회 및 관련 학회와 연계하여 우리나라 의료인들이 생물무기 사용 및 생물테러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대응책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p>					